

힌디어 헤게모니 초기 형성

-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을 통해 고찰한 문화적 패권과
문화적 동의 -*

김용정**

〈차 례〉

1. 서론
2. 일상어로서의 힌디어와 헤게모니
3.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과 문화적 패권
4.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과 문화적 동의
5. 결론

【국문초록】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의 북서부의 광활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언을 힌디어라는 거대 우산의 아래에 통합하여 힌디어 벨트를 형성하였다. 힌디어 우산 아래 존재하는 다수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749).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교수

의 방언들 중에 하나였던 카리볼리는 일상어와 상인의 언어에 지나지 않았으나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다른 방언들을 자신의 우산 아래에 두며 대표성을 획득하며 패권을 장악했다. 이는 이후 독립운동 과정에서 힌두 문화 담론과 국가 담론을 내포하며 상징성을 띄게 됨으로써 점차 ‘민족어’, ‘국어’,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다언어 국가인 현재 인도에서 인도어를 대표하는 언어로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헤게모니 밖에 있었던 힌디어가 문화적 패권과 동의를 얻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힌디어, 헤게모니, 나그리문자보급회, 문화적 패권, 문화적 동의

1. 서론

힌디어는 다언어 국가인 인도에서 현재 공용어(Official Language, Rājabhāṣā)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독립 과정 속에서 다수의 지역어들을 제치고 인도를 대표하는 국어(National Language, Rāṣṭrabhāṣā)로 상정될 정도로 언어의 측면에서 정치적인 권위를 지닌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집권하면서 힌디어-우선-정책(Hindi Imposition)¹⁾을 강화하는데, 이에 반

1) 힌디어-우선-정책은 공적 부문에서 힌디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힌디어-우선-정책의 사례는 1938년에 라자고팔라차리(C. Rajagopalachari)가 이끄는 인도국민회의가 행정 구역(presidency) 내의 학교들에서 힌디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려 했던 정책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으며,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2014년에 BJP(Bharatiya Janata Party)가 이끄는 연합정부는 정부 공무원들과 모든 부처, 부서, 기업, 은행에서 공공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원들은 모두 힌디

대하는 정치인, 문인, 언론은 이 정책을 힌두민족주의(Hindu Nationalism)에 뿌리를 내린 힌디어 헤게모니(Hindi Hegemony), 힌디어 파시즘(Hindi Fascism), 힌디어 쇼비니즘(Hindi Chauvinism)이라 하며 비판한다.²⁾ 힌디어 헤게모니는 다언어국가 인도에서 행정, 교육, 법률 등의 공공 분야에서 힌디어가 여러 언어들을 누르고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힌디어는 힌두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함으로써³⁾, 힌디어가 언어 영역에서 주도권을 얻어가는 것은 결국 힌두가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언어를 둘러싼 헤게모니 논쟁은 힌디어 지지자와 반대자의 양쪽 진영 모두에서 정치적인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 주장에서 나타나는 힌두민족주의와 연결된 ‘힌디어’의 범주와 개념은 협소한 의미에 국한되어 인도 서북부에서 근대 문학어로 정제된 힌디어로 한정된다. 이럴 경우 힌디어의 광의의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힌디어와 힌디문학 개념에 포괄적인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는 이슬람 문학 전통과 다양한 힌디어 계통에 속하는 방언의 언어와 문학전통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힌디어 헤게모니’의 개념은 모순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힌디어는 헤게모니의 밖으로 밀려나 있던 언어였으나, 19세기부터 20세기에 헤게모니 담론

어를 사용해야 하며, 힌디어나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힌디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힌디어우선정책을 시행한다. 행정뿐만 아니라 IIT와 IIMs 등과 같은 교육 및 법률 부문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정책이다.

2) 힌디어우선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Anti-Hindi Agitations)은 비힌디어권인 따밀나두에 뿌리를 둔 DMK(Dravida Munetra Kazhagam)과 AIADMK(All India Anna Dravida Munetra Kazhagam)와 같은 정치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힌두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BJP가 ‘힌디어를 권력을 상징하는 언어’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3) Gould, William, *Hindu Nationalism and the Language of Politics in Late Colonial India*, New Delh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35-86.

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힌디어를 헤게모니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여러 담론들이 사용되는데, 힌디어가 광대함, 포괄성, 융합성, 인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적 단일성을 지닌 언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⁴⁾ 이때 사용된 힌디어의 개념과 범주는 광의의 의미의 개념이므로 힌디어의 포괄성과 광대함을 경시하는 순간 힌디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했었던 초기의 개념과 모습에서 멀어져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힌디어가 지닌 문화적 권위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 힌디어가 공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힌두근본주의라는 담론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힌두만의 본연의 문학 전통 등에만 한정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패권을 쥐기까지 힌디어 벨트라는 넓은 영역과 중세의 언어문학전통을 포괄한 힌디어 문학전통을 오히려 부인하는 모순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이러한 힌디어가 언어적 주도권을 지닐 수 있게 된 통합적인 요소를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

힌디어 헤게모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족주의와 연결되거나 언어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⁵⁾ 이러한 시각에서의 해석은 단순히 정치학적인 구도에 대한 설명만 가능할 뿐 그 이면의 문화적인 통합적인 측면과 융합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힌디어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것과 동시에 사적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4) 다언어국가인 독립 인도가 출범하면서 여러 언어들 중에서 인도를 대표하는 언어인 국어를 상정하려고 논의하던 시점에서 간디(Gandhi)과 사바르까르(Vinayak Damodar Savarkar)는 힌두스파니어를 주장하였고, 암베드카르(Ambedkar)는 산스크리트를, 수바시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는 로마자로 표기된 힌디어를, 나그리문자보급회 일원은 데브나그리문자로 표기된 힌디어를 주장했다.

5) 힌디어와 민족주의 운동 과정에서의 힌디어에 대한 연구는 킹(Christopher King), 로이(Alok Rai), 딸와르(Virabhārata Talavāra)의 연구를 참고한다.

획득하고 있다. 이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힌디어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힌디어 헤게모니의 개념은 보다 더 확장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다층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학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⁶⁾ 19세기에 헤게모니 밖에 밀려나 있던 힌디어가 헤게모니의 중심부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패권을 장악해 나감과 동시에 문화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힌디어가 문화적 패권과 문화적 동의를 어떻게 얻어갔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한다. 2장에서는 일상의 언어에 지나지 않았던 힌디어가 어떻게 지배적인 권위를 지닌 언어가 되었는지 설명한다. 3장에서는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설립과 힌디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했는지 살펴보고 내포된 함의를 해석한다. 4장에서는 나그리문자보급회의의 역할을 통해서 힌디어가 어떻게 문화적 동의를 얻어나갔는지 살펴보고 해석한다.

2. 일상어로서의 힌디어와 헤게모니

힌디어는 19세기 초까지 인도의 북서부의 지역에 존재하던 다양한 방언의 형태로 존재했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방언과 언어들은 ‘힌디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융합된 형태로 인식되었으며 이 광활한 인도 북서부지역을 힌디어 지역

6) Williams, Raymond, *Marxism and Literature*, London, Verso, 1977, pp. 128-9.

(Hindi Belt)이라고 통칭할 수 있게 된다.⁷⁾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어에 지나지 않았던 언어가 권력의 중심의 언어가 될 수 있었는가?

힌디어는 현재의 모습을 취하기 전인 18세기까지 많은 방언들의 복합적인 형태인 혼합어로 존재했었다. 힌두어, 힌드비, 힌두스 따니, 우르두, 닥키니 등의 이름으로 불렸던 이 혼합어는 인도 서북부라는 경계가 모호한 광활한 지역에서 사용된다는 지리적인 특성과 각기 다른 문화적·정치적·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용자의 다양성에 따라 복합적인 특색을 지녔으며, 문법 어휘 문자의 측면에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⁸⁾ 특히 나그리 문자, 아랍-페르시아 문자, 마하자니(Mahājanī) 문자⁹⁾, 깨티(Kaithī) 문자¹⁰⁾ 등의 다양한 문자로 표기되고 있었다.

카리볼리(Khaṛībolī)¹¹⁾를 포함한 다양한 방언들의 집합적인 형태인 힌디어는 본래 델리 근교에서 일반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의 구어였다.¹²⁾ 이 언어는 17세기에 이미 인도서북부 지역에 상업의 목적으로 유입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아그라왈

7) Śarmā, Rāmavilāsa, 『Bhāratiya Sahitya Kī Bhūmikā』, Delhi: Akṣara Prakāśana, 1996, p. 363.

8) Cohn, Bernard S, “The Command of Language and the Language of Command”, Guha, Ranjit, *Subaltern Studies IV*,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6–329.

9) 마하자니 문자는 인도 북부에서 역사적으로 마르와리어, 힌디어, 뽀잡비어로 된 회계 및 채무를 기록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문자이다.

10) 깨티 문자는 아바드, 비하르, 벵갈 지역에서 까야스타 집단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문자이다.

11) 카리볼리는 서부 힌디어의 방언으로 뽀잡의 동부와 웃파르 뽀라테시와 분델칸드에서 사용되었던 혼합어의 한 형태이다.

12) Śukla, Rāmacandra, 『Hindī Sahitya kā Itihāsa』, Delhi: Kāntī Publications, 2007, pp. 297–312.

(Agravāla)과 카뜨리(Khatri) 등의 상인들이 서로의 교통어로서 사용되었다.¹³⁾ 당시 무갈 제국과 지역들에서 통치어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사용되었고, 종교의 영역에서 산스크리트가 사용되었고, 왕들과 귀족들의 유흥을 위해서는 브라즈바샤(Brajabhāṣa)가 사용되었으며, 문학어로는 브라즈바샤와 아바디(Avadhī)가 사용되고 있었다.¹⁴⁾ 이렇듯 왕들과 귀족들 또는 통치 계급들의 언어와 문인들의 언어는 점차 일반 민중과 멀어졌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사용자의 측면에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잡은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부문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상층어라고 규정할 때, 힌디어는 이와 거리가 먼 하층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어로서의 힌디어는 담론 주체의 변화, 힌디어 공론장의 형성, 하층어로서의 열등감과 상층어로서의 열망의 요인으로 언어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현상인 힌디어 헤게모니 의식이 형성되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론 주체의 변화를 힌디어가 상층어로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세기 이전까지 통치, 지식, 문화를 이끌던 상층 계층은 무갈통치자, 나왓(Navāb)의 귀족, 마하라자(Mahārāja), 라자(Rāja)와 힌두통치자와 각 지역의 종교의례와 문화행사 및 교육을 담당하던 브라만들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권력 계층이 담당하던 지식과 문화의 영역을 19세기 무렵 새롭게 등장한 중간계층이 이어받는다.¹⁵⁾

13) Grierson, George Abraham, *Linguistic Survey of India, IX-1*, Calcutta: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1916, pp. 1903-1928.

14) 김용정, 「19세기 중엽 힌디어의 정제(整齊)와 담론의 근대성」, 『인문학연구』 116, 2020, p. 20.

15) Dalmia, Vasudha, *The Nationalization of Hindu Traditions: Bhāratendu Hariśchandra and Nineteenth-century Banara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50-145.

영국식민치하에서 지식과 문화의 대변자의 역할이 중간계층과 신 지식인인 계층으로 넘어간 현상은 당대의 담론을 좌지우지했던 계층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새로 부상한 중간계층에는 마하잔(Mahajana)과 아그라왈과 같은 금융업자와 상인계층이 속해있었고 이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는 카리볼리였다. 새로운 중간계층과 신지식인층이 지식, 종교와 문화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점점 담론의 장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¹⁶⁾

인도 북서부 지역이 종교사회개혁을 주창하던 새자각운동(Navajāgraha)의 중심지였다.¹⁷⁾ 종교사회개혁과 민족자각의식의 시기에 신지식인들은 사회개혁과 민족주의운동을 위해 통합된 언어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아르야 사마즈(Arya Samaj)의 다야난다 사라스와띠(Dayānanda Sarasvatī)를 위시한 종교사회개혁운동의 창시자들은 종교사회개혁운동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인도와 인도인을 묶을 수 있는 언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때 당대의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교통어로서 기능을 하던 카리볼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¹⁸⁾ 종교사회개혁운동의 주체로 떠오른 새로운 지식인과 더 나아가 종교개혁운동을 일반 민중에게까지 전파하려는 노력은 일반민중이 사용하는 구어를 담론의 언어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담론 전파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일상어인 힌디어가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인식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6) Bayly, C.A., *The C.A. Bayly Omnibu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63-196.

17) Freitag, Sandria B., *Culture and Power in Banaras: Community, Performance, and Environment, 1800-198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1.

18) Tanḍana, Pūranacanda, 『Hindī Bhāṣā Sahitya Aura Saṃskṛti』, New Delhi: Satīśa Buka Ḍipo, 2008, p. 57.

힌디어 담론의 장(Hindi Public Sphere)¹⁹⁾의 형성을 하층어인 힌디어를 상층어로 끌어올린 두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카리볼리에 뿌리를 두며 나그리 문자를 채택한 힌디어는 19세기 초에 인쇄출판의 발전과 더불어 전파되고 점차 체계화된다. 19세기에 선교사들의 힌디어 사전과 성경과 종교지의 발간, 종교 문헌의 번역본 출판, 영국 식민 정부의 초등교육 진흥에 따른 힌디어 지역어 교재의 편찬, 포트윌리엄 컬리지(Fort William College)에서 힌디어 교재와 고대문학의 번역본과 문학작품들의 출판으로 힌디어 인쇄출판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문학에서 문시 사다수 크랄(Mumśī Sadāsukhalāla, 1746-1824), 잉샤알라 칸(Imśaallā Khām, 1756-1827), 랄루랄(Lallūlāla, 1763-1825), 사달 미슈러(Sadala Mīśra, 1767-1847), 라자 락슈만 싱(Rajā Lakṣmaṇa Simha, 1826-1896)이 힌디어로 산문 문학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힌디어가 체계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1826년에 최초 힌디어 신문인 『우단뜨 마르만드』(Udanta Mārtanḍa)의 출간을 필두로²⁰⁾ 1870년대까지 힌디어 인쇄출판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19세기 중엽에 『가비와판수다』(Kavīvacanasudhā, 1868), 『하리슈찬드라 매거진』(Hariśacandra Magazine, 1873)과 같은 문예지와 문학 작품의

19) 힌디어 담론의 장에 대한 개념은 오르시니(Francesca Orsini)의 다음 연구를 참고한다. Orsini, *Francesca, The Hindi Public Sphere 1920-1940: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Age of Nationalism*,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16.

20) 최초 힌디어 신문 창간 이후에 1850년대까지 주간지 또는 월간지 형식으로 발간된 신문들에는 『방그두뜨』(Baṅgadūta, 1829), 『쁘라자미뜨라』(Prajāmitra, 1834), 『바나라스 아크바르』(Bānārāsa Akhabāra, 1845), 『마르만드 뽀짜바쉬여』(Mārtanḍa Pañcabhaṣīya), 『간딕』(Jñānadīpa, 1846), 『말바 아크바르』(Mālavā Akhabāra, 1849), 『자가드딕 바스까르』(Jagaddīpa bhāskara, 1849), 『수다까르』(Sudhakara, 1850), 『사마단드 마르만드』(Sāmyadaṇḍa Mārtanḍa, 1850), 『마즈하룰사루르』(Majaharulasarūra, 1850) 등이 있다.

출판도 증가하였고, 공연예술·협회·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힌디어 담론의 장이 성장함에 따라 힌디어 독자들도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시대의식이 생성되고 표출되던 힌디어 담론의 장을 강타했던 담론의 한가운데에 언어와 문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즉 영국식민치하에서 식민지인으로서 인도인이 갖는 민족적 정체성과 애국심이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응집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까지 힌디어 담론의 장이 형성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다야난다 사라스와띠와 바르텐두 하리슈찬드러(Bhāratendu Hariścandra, 1850-1885)의 사후에 힌디어 담론의 장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였다. 이때까지도 지역어 지식인들 상당수가 우르두어를 사용하였고 힌디어를 열등하게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²¹⁾ 이 같은 하층어로서의 열등감과 상층어로 도약하고자 하는 열망을 초기 힌디어 헤게모니 의식을 형성한 세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무슬림 통치시대에 통치를 위한 공적 언어는 페르시아 문자로 쓰인 페르시아어였다. 상업에 의해 인도 땅에 유입된 아랍인, 이란인과 터키인도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였다. 당대 무슬림들과 높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지위에 올랐다. 이에 반해 페르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민중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반 민중은 민중어인 ‘힌드비, 힌두이, 힌디’를 페르시아 문자로 적었고 이것이 우르두어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영국통치시기에 페르시아어의 지위를 영어가 이어받았으며, 그 다음의 지위에 우르두어가 올라 있었다. 19세기 중엽까지 나그리

21) 19세기 중엽에 상류층과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우르두어에 비해 힌디어가 경시되는 풍조는 1870년에 바나라스에서 발간된 문예지 『시인의 언어의 감로수』(Kavivacana Sudhā)의 4호에서 바르텐두 하리슈찬드러가 밝힌 편집자 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문자를 채택한 힌디어는 공적 언어로서의 지위를 얻지도 못하였으며 높은 계층으로 진출하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힌디어가 사회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았던 것은 샴순다르다스(Syāmasundara Dāsa)의 『자서전』(Merī Ātmakahānī)에 잘 나타난다.

당시 바르펜두와 쉬브쁘라사드의 힌디어에 대한 열정으로 힌디어가 연명은 하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힌디어의 위상은 상당히 낮았었다. 법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에서도 단지 중등학교까지만 교육되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르두어 과목을 선택했었다. 시험의 응시생에 우르두어 구사자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대단히 능력 있는 학생으로 인정되었었다. 힌디어를 구사하는 학생은 촌스럽다고 여겨졌었다. 이런 힌디어의 열등하고 모욕적인 상태를 극복하고자 학생들 몇몇이 나그리 문자 진흥회를 설립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힌디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다.²²⁾

이 같은 힌디어의 하층어로서의 상태를 슈끌(Rāmacandra Śukla)이 『힌디어단어대양』(Hindī Śabdāsāgara)의 서문에서 언급한 다음 글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세 시대가 끝나가면서 영국의 식민 통치가 자리잡았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민중의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영국 식민통치자는 영어 교육 보급의 체계를 잡았다. 1797년에 동인도회사의 디렉터들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인도인들을 교육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별로 되어진 것은 없다. 이후 라자 람모한 라이 등과 같은 교육받은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영어 교육을 위해 콜카타에 힌두 칼리지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나가고 정부의 직업을 얻기 시작했다. 민중어를 배워서 누군가 교육되어진다는 생

22) Dāsa, Śyāmasundara, 『Merī Ātmakahānī』, Indiyana Presa Limiteda, Prayāga, 1941, pp. 21-23.

각은 당시 사람들은 하지 못했다.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산스크리트 또는 아랍어 정도였다. 산스크리트의 학당들과 아랍어의 학당들이 동인도회사로부터 약간의 보조를 받을 뿐이었다. 그러나 영어 교육에 대한 흥미 앞에 오래된 기관들쪽으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보조를 받던 것도 거의 끝났다. 몇몇 사람들이 이 고대 언어들의 교육을 지지했으나 맥컬레는 영어 교육을 지지하였고 동쪽 문학에 대해서 경시하는 표현을 1835년에 동인도회사는 영어 교육의 보급에 대한 제안을 승인하였고 서서히 영어 교육 기관을 열기 시작했다.²³⁾

이같이 지역어인 힌디어는 교육어의 측면에서 하층어에 머물러 있었다. 교육과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영어가 선호되고 있었다. 인도 식민정부는 지역어 교육에 대해 고심하긴 하였다.²⁴⁾ 그러나 식민정부는 지역어를 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교육의 영역에서 상층어는 영어였고 지역어인 힌디어는 하층어에 머물러 있었다.

이미 담론 주체가 힌디어를 사용하는 지역어 지식인으로 변화되고, 힌디어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하층어로서의 힌디어를 상층어로 도약시키려는 사회문화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부문과 교육 부문에서 헤게모니 구도의 밖에 밀려 있었던 힌디어가 인도 서북부와 아바드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데에 1893년에 설립된 나그리문자보급회(Nāgarī Pracāriṇī Sabh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3) Śukla, Rāmacandra, 『Hindī Sahitya Kā Itihasa』, Delhi: Prakāśana Sansthāna, 2002, pp. 310-312.

24) 1781년에 캘커타에 캘커타 마드라사와 까시에 산스크리트 칼리지가 힌두와 무슬림의 인재 양성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교육언어를 영어 또는 지역어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1835년 3월 7일에 윌리엄 벤팅트 경은 영어를 교육어로 삼고 서양 학문을 중시하는 시행령을 내린다. 1854년에 이 원칙이 고수되었고 인도교육정책이 수립되었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힌디어와 힌디어 문학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데브나그리 문자를 진흥 및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바라나시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공적 언어로 힌디어를 채택하려는 과정 속에서 언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힌디어 헤게모니 즉 힌디어를 둘러싼 문화적 패권주의²⁵⁾는 힌디-나그리 운동(Hindī-Nāgarī Āndolana)에서 조직적으로 발현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카리볼리와 데브나그리 문자가 민족어와 민족문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문화적 패권을 장악해 가고 어떤 문화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나그리문자보급회가 힌디어의 보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힌디어 헤게모니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과 문화적 패권

1)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설립

나그리문자보급회는 1893년에 힌디어와 힌디어 문학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데브나그리 문자를 진흥 및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바라나시에서 설립되었다.

힌디어문학사가 삼순다르다스는 현재 바나라스인 까시의 퀸스 컬리지(Queen's College)의 동문들과 함께 힌디어 문자인 나그리의 보급회라는 뜻을 가진 ‘나그리문자보급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첫 번째 모임은 1893년 3월 10일에 고빨쁘라사드 카프리

25) 문화적 패권주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사용한 용어 개념에 기초를 둔다. Ives, Peter, *Language and Hegemony in Gramsci*, London: Fernwood Publishing, 2004.

(Gopālaprasāda Khatri), 람수라뜨 미슈러(Rāmasūrata Mīśra), 움라우 썩(Umrāva Singha), 시브꾸마르 썩(Śivakumāra Singha), 람나라얀 미슈러(Rāmanārāyaṇa Mīśra)가 참석했다.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두 번째 모임을 1893년 7월 9일에 바부 하리다스 부아사브(Haridāsa Būāsava)의 집에서 가졌다. 이 회합에서 아르야 사마즈의 소속된 학자인 상까르랄(Śaṅkara Lāla)이 연설을 하였다. 1893년 7월 16일에 다시 열린 회합에서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정관과 관련된 초석이 놓여 졌으며, 이 회합에 샴순다르다스, 람나라얀 미슈러(Rāmanārāyaṇa Mīśra)와 타꾸르 시브꾸마르 썩(Ṭhakura Śivakumāra Simha)이 참석했었다.²⁶⁾ 이로써 1893년 7월 16일에 ‘나그리문자보급회’가 초기 설립자 3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인정된다. 설립자 3인은 모두 모두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었다.²⁷⁾

샴순다르다스가 의장직을 맡으면서 바르펜두의 뒤를 잇는 문호들²⁸⁾과 다른 힌디어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던 지식인들이 나그리문자보급회에 일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힌디어를 지지했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관심도 보급회로 쏠리게 되었다. 더 나아가 힌디어 인쇄출판에 공헌을 한 편집장들도 일원이 되었다. 카드그빌라스 프레스(Khaḍgavilāsa

26) Dāsa, Śyāmasundara, 같은 책, pp.3-4.

27) 나그리문자보급회를 설립한 3인은 모두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었다. 타꾸르 시브꾸마르 썩은 1872년에 바나라스의 띠르빠뜨(Tirpat) 지역에서 태어났다. 옷파르 뿌라테시의 찰둘리(Chandauli)에 위치한 미들 스쿨(middle school)에서 1888년까지 수학했다. 같은 해에 퀸스 칼리지에이 트 스쿨(Queen's Collegiate School)에 입학하였다. 1897년에 교직을 시작하여 부장학관(deputy inspector of schools)에 올랐으며 퇴임 시까지 평생 교육 분야에서 봉직하였다.

28) 라다끄리슈나다스(Rādhakṛṣṇadāsa), 수다까르 드위베디(Sudhakara Dvivedi), 라이바하두르 락슈미 상까르 미슈러(Rāyabahādura Lkṣmī Śaṅkara Mīśra), 찬누랄(Channulāla), 라이바하두르 뿌라다다스 미뜨러(Rāyabahādura Pramādādāsa Mitra) 등이 있었다.

Press)의 바부 람딘 썸(Bābū Rāmadīna Śiṃha), 『인도의 삶』(Bhārata Jivana)의 편집장 라다끄리슈나 버르마(Rādhākṛṣṇa Varmā), 바부 가다다르 썸(Bābū Gadādhara Śiṃha), 바부 까르딕 뿌라사드 카트리카(Bābū Kārtika Prasāda Khatri) 등이 포함되었었다.²⁹⁾ 나그리문자보급회가 초기 설립될 당시에 설립자, 역대 보급회장, 위원들은 대부분 힌두였다.³⁰⁾ 건물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당대의 통치와 상층 계층으로부터 받았다.³¹⁾ 나그리문자보급회를 운영하고 후원했던 계층이 지역어 지식인 이외에도 당대의 주류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립 이후 1893년 7월 16일에 열린 첫 번째 회합에 총 12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등록하였으며 정관을 마련하였다.³²⁾ 설립 당시 만들어진 정관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정관에 보급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을 알 수 있다.

- (가) 이 위원회를 (힌디어) 보급 위원회라고 명명한다.
- (나)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나그리 언어를 진흥시키기 위함이다.
- (다) 위원은 다른 언어로 쓰여진 책들 나그리 언어로 번역하거나 번역시키도록 한다.
- (라) 위원은 힌디어 신문들에 힌디어의 진흥을 위한 기사를 기고한다.

29) Dāsa, Śyāmasundara, 같은 책. pp.3-4.

30) King, Christopher, "The Nagari Pracharini Sabha of Benares, 1893-1914: A Study of the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of the Hindi Language",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1974.

31) 나그리문자보급회는 1902년 9월 29일에 까시 나레시 마하라자 뿌라부 나라얀(Prabhu Nārāyaṇa)의 후원으로 보급회의 건물을 건립한다. 또한 보급회의 운영을 위해 까시 지역의 통치자, 우다이뿌르, 조드뿌르, 케따히, 꼬따 등의 라자들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32) Kāśī Nāgarīpracārīṇī Sabhā, 『Kāśī Nāgarīpracārīṇī Sabhā kā Arddhaśatābdi kā Itihāsa』, Kāśī: 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1943, pp.4-5.

- (마)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언어의 학습, 이 언어로의 대화와 집필활동, 동료에게 이 언어의 진흥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 (바) 위원회의 목적은 단일성(Ekatā)을 전파하는 것이다.
- (사) 위원은 인도(bhāratavarṣa)의 다른 지역들에 나그리문자보급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외 위원회의 목적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 (아) 힌디어의 오류들을 없애는 것이다.
- (자) 힌디어의 전파와 권익 확보를 위해 지역과 다른 지역의 학자들에게 설파하는 것이다.
-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
- (카) 힌디어를 최고의 그리고 필수적인 주제들의 책들을 통해 우려하게 만드는 것이다.
- (타) 상금을 통해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책을 쓴다.
- (하) 위원회 내에서 정치와 종교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위의 정관은 1895년 8월 10-11일 양일에 있었던 회합에서 개정되었다. 1903년 6월 30일에 개정된 정관에는 인도인들에게 교육의 전파와 지성인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다.³³⁾

설립 당시 힌디어 신문 『인도의 삶』에 “나그리문자보급회, 까시(Nāgarī Pracāriṇī Sabhā, Kāśī)”라는 기사에서 보급회의 규범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가) 위원회의 주요 의무는 나그리 언어를 통해 스스로 진보하고, 나그리를 구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나그리 문자와 언어로 서신을 교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흥미를

33) Pāṭhaka Sunītā, 『Nāgarīpracāriṇī Sabhā Kā Hindī Ko Yogadāna』, Varanasi: Hariścandra Snātakottara Mahāvidyālaya, 1999, p. 6.

갖도록 한다.

- (나) 나그리 글을 쓰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당대의 신문들에 출판하도록 한다.
- (다) 위원은 타지역의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위원회들과 서신활동을 통해 동일성과 우호관계를 맺는다.
- (라) 가능한 한 다른 지역에도 이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 (마) 다른 언어로 된 훌륭하고 실용성 있는 저작들을 힌디어로 번역한다.
- (바) 상호간에 우호와 동질성을 다진다.

위의 정관에 나타난 목적과 활동 방향을 통해서 나그리문자보급회의 문화담론적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딸와르(Talvāra)에 따르면 19세기 중엽 종교·사회개혁운동을 주도한 지식인들과 힌디어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운동했던 힌디어 지식인들의 성향이 달랐다. 아르야 사마즈와 브라흐모 사마즈 등에 속한 지식인은 영국식민통치자의 지배적인 문화담론과 인도의 잔존하는 문화담론의 사이에서 부상한 근대적·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힌두 담론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나그리문자보급회 등에 속한 힌디어 지식인은 보다 더 힌두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2) 공적언어로서의 나그리문자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적 언어와 행정과 법원 업무에서 사용되는 공적 언어가 달랐다. 1830년대에 비하르를 제외한 북부 인도에서 공적 언어로 우르두어가 채택되었고 힌디어는 동등한 지위를 얻는 데에 실패한다.³⁴⁾ 이에 우르두어

34) 무슬림 통치자는 법정에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였다. 18세기에 무갈 제

와 경쟁 구도 속에서 힌디어가 공적 언어의 패권을 차지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차원의 힌디-나그리 운동³⁵⁾이 힌디어 공문장을 중심으로 1860년대에 시작되어 20세기까지 지속된다.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조직이 나그리문자보급회이다.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운동은 정치적인 목적을 띤 행동으로 표출되었는데 특히 식민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 청원서,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1868년에 페르시아어 문자 대신 나그리 문자의 사용을 촉구하는 「인도북부법정문자에 관한 제안서」(Memorandum Court Characters In The Upper Provinces Of India)가 제출되었다. 그 후에 지방공공교육부는 1869년, 1872년, 1873년에도 이 같은 보고서와 청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함으로써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맥락의 주장이 당대의 신문과 잡지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표출되었다.

운동의 영향이 1870년대 중반까지 언어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듯했으나,³⁶⁾ 1880년대에 힌디-나그리 운동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1880년에 힌디어는 중부 지역과 비하르에서 우르두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1882년에 북서부와 아바드의 주 정부가 교육의 진흥을 검토하는 목적 하에 헌터 위원회(Hunter

국의 빠른 쇠퇴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어의 위상은 지속되었다. 동인도 회사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도 페르시아어는 19세기까지 공적 언어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King, Christopher, Ibid, pp. 53-87.

35) 힌디-나그리 운동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 서북부와 아바드 지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문자의 영역에서 힌디어와 데브나그리(Devanāgarī) 문자가 패권을 장악하도록 한 운동이다.

36) 1870년대 중엽까지는 언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우르두어와 페르시아어를 선호했던 윌리엄 뮈어(William Muir) 경은 언어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퇴임했다. 그 이후 부임한 존 스트레이치(John Strachey) 경은 힌디어를 열등한 언어로 인식했으며, 또한 그 이후 부임한 조지 쿠퍼(George Couper) 경은 1877년에 정부 고용 시험에 우르두어로 응시한 후보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Commission)를 구성하였을 때, 힌디어와 나그리 지지자들은 언어 정책에 변화를 꾀하고자 협회³⁷⁾, 종교 단체³⁸⁾, 언론, 문학 등을 중심으로 운동을 펼침으로써 힌디-나그리 운동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1880년대의 열기를 이어받아 특히 1893년에 나그리 문자의 전파와 힌디어 문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현재의 바나라스와 비하르 지역에 설립된 나그리문자보급회를 발판으로 힌디-나그리 운동은 인도 서북부 지역 전역으로 세력이 확장되고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된다. 인도서북부와 오우드 지역에서 법정 문자와 초등 교육에서 힌디어를 사용하도록 열의를 다하였던 말비야(Madana Mohana Malaviya)와 함께 삼순다르다스와 보급회의 위원들은 역할을 다하였다. 삼순다르다스는 문예지 『나그리쁘라짜리니빠뜨리까』(Nāgarī Pracārīṇī Patrikā)에 북서부지역과 아바드에 법정의 문자와 초등 교육에 관한 평론을 썼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특히 영국식민정부에 언어 정책 관련하여 청원을 함으로써 힌디-나그리 운동의 선봉에 섰다. 지방 세입 위원회(Board of Revenue)에서 행정관은 소환장 및 기타 공문서를 나그리 문자로도 작성해야 한다고 1875년에 발효된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행할 것을 청원했다.³⁹⁾ 또한 보급회는 지역의 주요 인사 17명을 선발하여 대표단(deputation)을 구성하였고, 이 대표단은 1898년 3월 2일에 안토니 맥도넬(Antony MacDonnell) 경에게 나그리 문자가 정부의 행정기관과 법원들에서 사용되어야만 하고, 모든 소환장, 판결문,

37) 나그리 문자와 힌디어의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는 1876년에 알라하바드에 설립된 나그리문자보급회, 1877년에 설립된 언어 진흥회(Bhāṣā saṃvardhinī Sabhā), 1882년에 메라트에 설립된 데브나그리보급회(Deva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1893년에 바나라스에 설립된 나그리문자보급회(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등이 있다.

38) 종교 단체에 진리 종교 진흥회(Satya Dharmavolambini Sabha)가 있다.

39) Dāsa, Śyāmasundara, 앞의 책, p. 26.

법령 등을 기입하는 문자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19개 지역에서 6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⁴⁰⁾ 그 결과 식민 정부는 나그리 문자를 공공 분야의 주요한 영역에서 우르두어와 동일한 지위를 나그리 문자에도 부여한 법안을 1900년에 채택한다.⁴¹⁾ 이로써 힌디-나그리 운동의 승리와 아랍-페르시아 문자와 우르두어의 패배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3) 국어로서의 힌디어와 국가통합

영국식민치하 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언어 운동은 다 언어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인도를 영국 식민이라고 하는 거대 타자에 맞서서 하나의 통합된 의식을 고무시키고자 하나의 문자 하나의 언어라는 국어와 국문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그리문자보급회는 국문자로서 나그리 문자와 국어로서 힌디어를 내세우고 이를 통해 국가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힌디어는 단순히 지역어를 넘어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 당시에 인도의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인도의 전역을 하나로 연합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감정과 문화적인 단일성을 견고하게 하려는 의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문인들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힌디어와 데브나그리 문자가 적절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비힌디어 지역에 나그리 문자의 보급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힌디어의 보급을 통해서 힌디어의 문자인 나그리 문자를 보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힌디어 이외의 인도어들을 표기할 수 있는 교통 문자로서 나그리 문자를 보급하

40) Dāsa, Śyāmasundara, 앞의 책, pp. 33-34.

41) 1900년 4월 18일 맥도넬 경은 법정 언어로 나그리 문자도 채택하였다.

는 것이었다.

첫째, 힌디어의 보급을 통해 나그리 문자를 보급할 것을 신지식인들이 주장하였다. 람 모한 라이(Ram Mohan Roy, 1772- 1833)는 1826년에 발행한 잡지 『방그두뜨』(Baṅgadūta)를 힌디어, 영어, 방글라어, 파르시어 문자로 발행했었으며, 스스로 힌디어로 글을 쓰고 다른 이들에게도 힌디어로 쓸 것을 촉구했었다. 다야난드 사라스와띠는 구즈라띠어를 모어로 삼고 있었으나 저서 『사따르트 뿌라카시』(Satyārtha Prakāśa)를 힌디어와 데브나그리 문자로 써서 출판했다. 이외 민족주의자들⁴²⁾은 국가의 정치적, 감정적, 문화적인 단일성을 위해 힌디어와 데브나그리 문자를 인도 전역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취했으며 힌디어와 데브나그리 문자를 전국 단위에서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였다.⁴³⁾

둘째, 인도의 전역인 비힌디어권의 언어들을 위해 나그리 문자를 보급하자고 주장한 지식인에는 가장 먼저 켈커타 법원의 법관인 샤르다짜란 미슈리(Śārdācarāṇa Mīśra)를 들 수 있다.⁴⁴⁾ 국문자(國文字)와 세계문자로서 데브나그리 문자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후 발강가다르 띠락은 1905년 12월에 개최된 나그리문자보급회의 한 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이것이 “A Standard

42) 켄샴판드러 센(Keshub Chandra Sen, 1838-1884), 부테브 무커르지(Bhudev Mukhopadhyay, 1827-1894), 스와미 쉬랏다난드(Swami Shraddhanand, 1856-1926), 발강가다르 띠락(Bal Gangadhar Tilak, 1856-1920), 마단모한 말비야(Madan Mohan Malaviya, 1861-1946), 꼬리슈나스와미 아이야르(Alladi Krishnaswamy Iyer, 1883-1953), 마하뜨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 까까 칼렐까르(Kaka Kalelkar, 1885-1981), 뿌루숏탐 다스 판단(Purushottam Das Tandon, 1882-1962), 비노와 바베(Vinoba Bhave, 1895-1982) 등이 있다.

43) Caudharī, Ananta, 『Nāgarī Lipi aur Hindī Vartanī』, Patna: Bihārā Hindī Grantha Akādāmī, 1973, p. 120.

44) 김찬완, 최지연 편, 『인도 대전환의 실체와 도전: 힌두 헤게모니 담론』, 다해, 2023, pp. 163-202.

Character for Indian Languages” (인도 언어를 위한 표준 문자)라는 제목의 기사로 Indian Nation Builders 2-4에 실렸다. 이것을 힌디어로 번역한 글이 1953년 5월에 발행된 잡지 『힌디어문학 학술지』(Sammelana Patrikā)와 『국 어』(Rāṣṭrabhāṣā) 12권 7호에 실렸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로마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 문자는 매우 단점이 많고, 우리[인도사람]의 말을 그 글자로 담지 못한다.”라고 하며 로마 문자로 인도어를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을 배격하였다. 그는 데브나그리 문자 보급 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운동을 북부 인도에 보편적인 문자로서 보급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이다”라고 밝힌다. “만약 아르여 계통의 언어와 비아르여 계통의 언어들을 위해서 하나의 문자가 쓰인다면 인도 민족의 단일성과 지식의 전파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데브나그리 문자를 통해서 마라티어처럼 구즈라띠어, 방글라어 등의 언어들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국무상의 업무도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⁵⁾ 이 같은 운동을 나그리문자보급회가 독립 과정과 그 이후까지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1953년에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60주년 기념회(Hiraka Jayantī Mahotsava), 국어 학술대회(Rāṣṭra Bhāṣā Sammelana Aura Goṣṭhī), 아시아 언어 학술대회(Eśiyāī Bhāṣā Sammelana), 언론인 학술대회(Patrakāra Sammelana), 문학 논의(Sahitya Vimarśa) 등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나그리문자보급회가 편찬한 『60주년 기념집』(Hiraka Jayantī Grantha)의 첫 구절을 통해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

45) Vājapeyī, Nandadulāre, 『Devanāgarī Lipi Swarūpa, Vikāsa Aura Samasyāem』, Lucknow: Hindi Sahitya Bhaṇḍāra, 1942.

나그리 문자와 힌디어의 권한, 성공,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노력해온 가장 오래된 유일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저명한 문학가들과 애국지사들의 헌신을 통해 정제되고 완숙해진 인도의 언어, 문학 그리고 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몰두했다.⁴⁶⁾

나그리문자보급회는 나그리 문자와 힌디어에 권한과 성공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기관이라고 명시된다. 문학가들과 애국지사들이 언어와 문학과 문화를 정제하고 성숙의 단계까지 끌어올려 놓았으며 이 과정에 나그리문자보급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몰두해왔음을 알 수 있다. 나그리문자보급회가 나그리 문자를 채택한 힌디어가 언어와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도록 역할을 한 유일한 가장 오래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나그리문자보급회 60주년 기념식에서의 난드둘라레 바즈빠이(Nandadulāre Vājapeyī)의 다음의 낭독문에서 힌디어를 국어로 상정하려던 나그리문자보급회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나그리문자보급회가 설립될 당시 영어가 이 지역(deśa)의 공적 언어가 되어 있었고 우르두어가 북부 인도에서 국어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을 저지할 요량으로 나그리문자보급회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언어와 문화적 차원에서 보여준 첫 번째 국가적인 저항을 상징한다. 초창기에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정책은 정체성을 보호하는 차원이 강했었다. 아마도 그래서 보급회의 이름에 힌디어 대신 나그리 단어를 쓴 것 같다.⁴⁷⁾

나그리문자보급회가 행한 역할의 중요성은 보급회가 설립된 지

46) Lāla, Śrīkr̥ṇa, Tripāthī, Karuṇāpati, 『Hiraka Jayantī Grantha』, Kashi: 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p. 3.

47) Lāla, Śrīkr̥ṇa, Tripāthī, Karuṇāpati, 같은 책, pp. 91-112.

100년이 되는 1993년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인도대통령궁에서 개최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후대의 가치평가를 통해 국어와 국문자로서의 힌디어와 나그리문자의 정립을 담론화함으로써 국가의 단일화 및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에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문화적 패권: 전체주의적 시각과 힌두 문화 담론

1893년에 설립된 나그리문자보급회는 힌디-나그리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데브나그리(Devanagari) 문자로 표기한 힌디어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우월한 지위를 얻도록 역할을 하였다. 1860년대에 시작된 힌디어-나그리 문자 운동은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설립과 역할을 통해 20세기까지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되었다. 이 운동은 1947년 독립 이후 옷따르 뿌라데시 주정부가 데브나그리 문자로 쓰여진 힌디어를 주공용어(Official State Language)로 채택함으로써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⁸⁾ 19세기까지 이 운동은 주의 범주인 특히 인도북서부와 아바드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 특정한 언어와 문자에 관한 사안은 국가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었고 이것은 힌두-무슬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본래 힌디어와 우르두어는 거의 유사한 언어이고, 두 언어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은 각각 나그리 문자와 아랍-페르시아 문자를 취한다는 문자의 차이이다. 나그리 문자는 힌두의 권익을 대변하며 힌두 문화 담론을 함유하게 되고, 아랍-페르시아 문자는 힌두와 무슬림의 권익을 대변하며 무슬림 문화 담론을 함유하게 된다.

48) King, Christopher, 같은 논문, p. 126.

공적 언어의 지위를 얻으려는 힌디어와 나그리의 경쟁 구도는 결국 나그리 문자와 아랍-페르시아 문자 사이의 패권 경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⁴⁹⁾ 패권 경쟁 과정 속에서 힌디어는 우르두어로 분리되고 각각 독립된 문자를 채택한 독립된 언어로 체계화된다. 나그리 문자를 채택하고 산스크리트 계열의 어휘를 채택하는 언어가 힌디어가 된다.⁵⁰⁾ 또한 마하자니와 깨티 문자를 배격하고 나그리라는 하나의 문자만을 선정하였다.⁵¹⁾ 이는 당대의 힌디어 어휘에 혼재된 우르두어와 브라즈바샤를 삼가하고 산스크리트 계열의 따드삼과 따드바브를 차용하여 언어를 정제(整齊)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문체개혁 운동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이 보수적인 언어 정제 과정에는 힌두문화담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합의 기조가 중심부에 흐르고 있다. 이는 국가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구분하고 배격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단일어와 단일문화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전체주의적 시각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이후 힌디어 보급과 증진을 위한 기관들을 설립하는 데에 역할을 하였다. 힌디어문학대회(Hindi Sahitya Sammelana)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힌디어문학대회는 정치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서 당대의 정치지도자인 마단

49) 19세기에 우르두어를 무슬림의 문화정체성으로 상징하려는 노력을 우르두어-운동이라고 한다. 힌디어와 우르두어는 공적 언어의 지위를 얻기 위해 패권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힌디어와 우르두어는 각각 힌두문화담론과 무슬림문화담론을 상징하게 된다. 우르두어 운동은 이후 전인도무슬림연맹과 파키스탄 독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함유하게 된다. King, Christopher, 같은 책, pp. 126-172.

50) 반면에 아랍-페르시아 문자로 표기되고 아랍어-페르시아어 어휘를 주로 취하는 언어가 우르두어가 된다.

51) 라이(Rai)는 나그리 문자가 깨티 문자와 마하자니 문자와 달리 산스크리트 전통을 잇는 순혈성을 지녔기 때문에 힌디어운동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밝힌다.

모한 말비야와 간디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듯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시금석이 되었었다. 초기 나그리 문자보급회의 회원이었던 간디는 보급회에서 개척하는 힌디어문학대회에서 탈퇴하게 된다. 간디는 힌디어를 힌두스파니어로 명명하면서 데브나그리 문자와 페르시아 문자로 동시에 표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그리문자보급회와 힌디어문학대회의 조직위원회는 간디와 다른 입장을 취하였는데, 특히 힌디어로 명명할 것과 나그리문자로만 표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나그리문자보급회에서 표방하는 것이 힌디어 패권화였으며, 그 내면에는 힌두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4.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과 문화적 동의

힌디어와 경쟁 구도에 있었던 우르두가 공적 언어로 채택되자 힌디어를 법정 언어와 교육 언어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힌디어를 언어적으로 체계화하고 문학적으로 정통성을 세워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⁵²⁾

힌디어가 헤게모니를 점유하기 위해서 문화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역할을 위해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설립 첫해인 1893년부터 힌디어와 데브나그리 문자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힌디어 사전, 힌디어 문법서, 힌디어 문학사, 힌디어 문인의 위인전, 힌디어 과학도서와 전문도서, 힌디어 고전 발굴, 문예지 발간을 하였다. 1894년에 인쇄출판을 담당하던 카드그빌라스 프레스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건립의 초석을 다졌다. 나그리문자보급회가 문화적 동

52) Śukla, Rāmacandra, 같은 책, pp. 294-322.

의를 얻어가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전·문법서 편찬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설립 초기부터 힌디어가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기 위해서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어휘들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학문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언어 정비를 해야 한다고 자각했다. 이를 위해 사전 편찬을 통해서 힌디어 어휘의 학문성을 확보하고 문법서 발간을 통해서 표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인도 식민정부는 지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지역어는 교육어로 기능하기에는 과학성,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층어에 머물러 있었다. 19세기 초까지 힌디어로 된 언어학과 역사 등의 인문학과 관련된 책이 거의 없었고 특히 과학도서가 전무했었다.⁵³⁾ 그 이유를 지역어 지식인은 당시까지 힌디어 전문용어가 확립되지 못한 점에서 찾았다.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나그리문자보급회는 힌디어 과학용어사전을 편찬할 계획을 수립하고 1898년에 작업에 착수한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과학용어사전 편찬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초반에 지리, 수학, 천문, 경제학, 재료과학, 화학, 철학과 관련된 용어를 웹스터 사전(Webster Dictionary)에 기초하였다. 7개의 학문 분야로 나뉘어 전문가 위원회를 결성하여 편찬 작업에 돌입하여 초고를 완성하였다. 초고를 인쇄한 후 사전 편찬을 위한

53) 1891-1892년의 칼라바반(Kalābhavana) 연차보고서에 실린 갓자르(T. K. Gajjara) 교수의 글을 통해 당시 힌디어로 된 과학도서가 전무했던 상황과 그 이유 그리고 과학 용어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Kāśī Nāgarīpracāriṇī Sabhā, 『Kāśī Nāgarīpracāriṇī Sabhā kā Arddhaśatābdi kā Itihāsa』 Kāshi: Nāgarī Pracāriṇī Sabhā, 1943.

54) Dāsa, Śyāmasundara, 앞의 책, pp. 45-62.

전문가 집단이 결성되었다. 편집위원회는 힌디어 권역과 기타 지역인 마다 뿌라데시, 비하르, 상옥뜨 뿌라데시, 뽀잡 등의 교육위원회에서 보내준 전문가들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몇 번에 걸쳐서 어휘를 검증하는 회합을 열었다. 1903년 9월 21일에 까시에서 열린 첫 번째 회합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사전편찬 원칙을 수립하였다.

1. 전문 용어로서 적절한 힌디어 단어들을 첫 번째로 선정한다.
2. 위의 단어들이 없을 경우 마라티어, 구즈라띠어, 방글라어, 우르두어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선정한다.
3. 위의 단어들이 없을 경우 산스크리트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선정하고 그리고도 없을 경우 산스크리트에 기초하여 신규 어휘를 만든다.

이 회합에서 지리, 수학, 점성학, 경제학과 관련된 단어가 확정되었다. 철학 용어를 위해서 다른 하부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경제학의 추가 용어를 위해서도 다른 하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두 번째 회기가 1903년 9월 27일에 열렸고 1904년 1월 8일까지 지속되었다. 세 번째 회기가 1906년 6월 30일에 열리고 모임이 지속되었다. 검증 단계를 거쳐 1908년에 출판되었다. 초판에 7483개 영어 단어와 19472개의 힌디어가 단어가 수록되었으나 개정판에 10330개의 영어 단어와 16269개의 힌디어 단어가 수록되었다. 이같이 최초의 힌디어 과학 용어 사전인 『힌디어과학사전』(Hindī Vējñānika Kośa)이 삼순다르다스가 이끄는 편집위원회의 8년에 걸친 집필 기간 끝에 1906년에 출판되었다. 이는 인도의 근대지역어로 된 첫 번째 과학 용어 사전이 되었다.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학문분과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학문 분야와 어휘 현황

학문 분야	어휘
지리	481개의 영어 단어와 675개의 힌디어 동의어
점성학	813개 영어 단어와 148개 힌디어 단어
경제학	1320개 영어 단어와 2115개 힌디어 단어
화학	1638개 영어 단어와 2212개 힌디어 단어
수학	1240개 영어 단어와 1580개 힌디어 단어
재료 과학	1327개 영어 단어와 1541개 힌디어 단어
철학	3511개 영어단어와 7198개 힌디어 단어

사전에 수록된 어휘들이 포괄하는 학문 분과를 보면 주로 과학 전반을 다루고 있고 철학과 경제학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힌디어를 위한 용어 사전이 부재했었다. 나그 리문자보급회는 나그리 문자로 표기하는 힌디어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흥 및 보급하는 것을 설립 목표로 삼는다. 이에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수록한 사전 편찬을 위해 1926년부터 용어를 수집하였고 1932년에 법정용어사전인 『힌디어법정용어사 전』(Kacaharī Hindī Kośa)을 출판하였다. 이외에도 8년 동안의 집대성의 기간을 통해 1898년에 『전문용어사전』(Pāribhāṣika Kośa)을 출판했다. 이는 가장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에 기반을 둔 최초의 힌디어 전문용어사전으로 평가된다. 이 사전은 다른 지역어인 구즈라띠어, 마라티어, 방글라어로도 전문용어사전이 편찬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이후 1910년에서 1929년에 걸쳐 편찬된 힌디어대사전인 『힌디어어휘대양』(Hindī Śabda Sāgara)이 총 93,115 단어를 수록한 8권으로 출판되었다. 12년간 과학의 거의 전영역의 어휘를 집대성한 6000쪽 분량의 백과사전이 12권으로 『힌디어세계사전』(Hindī Viśva Kośa)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

다.⁵⁵⁾ 『힌디어세계문학사전』(Hindī Viśva Sāhitya Kośa)이 1989년에 1권과 1994년에 2권으로 출판되었다. 이외 『지식사전』(Jñyāna Kośa)이 출판되었다. 이로써 힌디어가 여러 학문 분과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립되어 감에 따라 상층어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힌디어의 열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법서 편찬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까르파쁘라사드 구르(Kāmarā Prasāda Guru)에 의해 문법서 편찬 작업이 진행된다. 문법서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위원회의 의장을 당대의 마하비르쁘라사드 드위베디(Mahāvīra Prasāda Dvivedī)가 맡았다. 1920년 10월 14일에 연구위원회의 문법서 감수를 거쳐 1920년에 힌디어의 첫 번째 권위 있는 문법서가 출판된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지역어로 된 전문용어가 확립되고 문법적 체계가 잡혔으며 지역어 문학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확보되었다.

2) 힌디어 문학의 발굴

문학적 관점에서 힌디어는 하층어였다. 일상어인 카리볼리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근대 힌디어가 카리볼리 문학 전통만을 따를 경우 그 기반은 상당히 약한 상태였다. 당시 문학에서 상층어는 산스크리트였다. 19세기에 산스크리트 문학의 원전 발굴과 목록 체계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⁵⁶⁾ 이를 통해 산스크리트 문학의 범주

55) 인도의 첫 번째 백과사전은 1911년에 나겐드라나트부스가 편찬한 『방글라어세계사전』(Baṅgālā Viśva Kośa)이다. 연이어 『힌디어세계사전』과 『인도어세계사전』(Bhārātī Viśva Kośa) 등이 출판되었다. 1954년에 힌디어로 된 독창적이고 권위 있는 백과사전을 편찬하고자 인도 정부의 후원하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1956년에 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1957년부터 1970년까지 12년간 편찬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힌디어세계사전』이 탄생하였다.

가 확장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반해 힌디어는 아직 문학적 전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학적 측면에서 상층어로 도약하기 위해서 문학의 외재적 · 내재적 측면에서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문학사적으로 문학의 뿌리를 찾아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문학 원전 발굴, 문학사 기술, 문예지 발간⁵⁷⁾ 등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힌디어 문학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힌디어로 쓰여진 원전을 발굴하고 서지 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문학 원전 발굴 작업을 통해 힌디어 문학 전통의 기반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을 나그리문자보급회가 가장 먼저 인식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설립 첫해인 1893년부터 힌디어 필사본 발굴 작업에 착수한다. 보급회는 우선 인도(Bhārata)중앙정부, 연합주(Saṃyukta-Pradeśa)정부, 뽀잡주정부와 아시아틱소사이어티(The Asiatic Society)에 산스크리트 필사본 발굴 시에 힌디어 원전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작업의 기초를 마련한다.⁵⁸⁾ 1894년부터 보급회는 매해 400루피의 기금을 마련하여

56) 1868년에 인도 식민정부는 라다끄리슈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인도의 전역에서의 산스크리트 필사본 발굴 작업 착수를 결정하였다. 식민정부의 후원 하에 산스크리트 필사본 발굴이 아시아틱소사이어티, 봄베이와 마드라스의 주정부와 협회 등의 협력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람끄리슈나 고폄 반다르카르(Rāmakṛṣṇa Gopāla Bhaṇḍārakara, 1837-1925), 게오르크 뵐러(Georg Bühler, 1837-1898), 피터 피터슨(Peter Peterson, 1847-1899)의 공헌이 지대했다.

57)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월간지 『사라스와띠』가 창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고, 직접 문예지 『나그리쁘라짜리니빠뜨리까』를 발간하였다. 삼순다르다스, 드위베디(Mahāmahopādhyāya Sudhākara Dvivedi), 라다끄리슈다스, 람판드러슈골, 람판드러샤르마, 베니쁘라사드가 편집장을 지냈다.

58) 1895년에 아시아틱소사이어티가 바나라스에서 힌디어 필사본 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600권의 서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연합주정부는 바나라스의 산스크리트 대학에 보관되었던 힌디어 필사본을 찾아 서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Dāsa, Śyāmasundara, 같은 책, pp. 79-129.

직접 알려지지 않았던 힌디어 시인들과 그들의 문학작품을 찾아 서지를 작성하고 출판하기 시작했다. 원전 발굴과 서지 목록 작성 작업을 위해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연간 3500루피의 예산을 책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1000루피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작업에 들어간다. 발굴 지역으로 힌디어가 사용되었던 광범위한 지역인 메라트, 알리가르, 아그라, 이따와, 파루카와드, 바라트푸르, 도울라트푸르, 마더쁘라데시, 라이뿌파나, 비하르, 뽀잡과 여타 산악 지역을 선정한다. 이처럼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수집-보존-출판이라는 3단계로 이뤄진 문학원전 발굴 작업이 진행된다.⁵⁹⁾

문학원전 발굴 작업을 통해 문학·역사·사회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안을 발견했을 경우 보고서를 기록하여 자세하게 남겨두었다. 1900년부터 1918년까지의 발굴 정보와 힌디어 문인과 문학의 서지 목록과 내용을 기술한 『힌디어필사본보고서』(*Hastalikhita Hindi Pustakom kā Śikṣipta Vivaraṇa*)⁶⁰⁾이 편찬된다. 1904년 출판된 『힌디어필사본보고서』에 169개의 서지 목록이 수록되었다. 작자 미상의 원전 12권, 90명의 문인의 원전 157개가 수록되었다. 작품 연대는 1개는 12세기, 2개는 14세기, 1개는 15세기, 22개는 16세기, 18개는 17세기, 18개는 18세기, 16개는 19세기로 추정된다. 수록된 문인과 작품들 중에서 툴시다스(*Tulasīdāsa*)의 『람짜리뜨마나스』(*Rāmacaritamānasa*), 꾸투반(*Kutubana*)의 『므리가바띠』(*Mṛgāvatī*), 자여씨(*Jāyasī*)의 『빠드마바뜨』(*Padmāvata*), 찰드(*Canda*)의 『쁘리트비라즈라소』(*Prthvirāja Rāso*), 나르빠띠 날흐(*Narapati Nālha*)의 『비살데브라소』(*Bīsaladeva Rāso*) 등이 힌디어

59) Lāla, Śrīkr̥ṣṇa, Tripāthī, Karuṇāpati, 같은 책, pp. 91-112

60) 삼순다르다스는 1900년-1908년에 7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1908년-1911년에 8차와 9차 보고서를 삼비하리 미슈러(*Śyāmbihārī Mīśra*)가 작성하였으며, 10차와 11차 보고서는 라이바하두르바부히라랄(*Rāya Bahādura Babu Hiralāla*)이 주관하여 작성하였다. Dāsa, Śyāmasundara, 같은 책, pp. 1-28.

문학사에서 문학적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 이같이 원전 제목, 엮은 이 이름, 책의 분량, 표기 문자, 원전 보관 상태, 원전 보관 장소, 원전 주제, 집필자 서문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는 힌디어 문학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된다.⁶¹⁾

나그리문자보급회의 문학 원전 발굴의 결실로 힌디어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태동기와 중세의 문학 원전들이 출판된다. 중세의 문학어인 아바디와 브라즈바샤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힌디어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언어적으로는 카리볼리와 다르지만 문학의 외재적 특성과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힌디어 문학의 전통 내에 흡수되게 된 것이다. 힌디어 문학사⁶²⁾의 범주가 연대와 언어의 측면에서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는 『힌디어어휘대양』의 서문에 기술된 힌디어 문학사에 포함된 중세의 주요 작가, 작품, 언어, 연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표 1〉 작가, 작품, 언어, 시대 현황

작가	작품	언어	시대
판드바르다이	쁘리트비라즈 라소	아바디	11세기
자여씨	빠드마와뜨	아바디	15세기
수르다스	수르사가르	브라즈바샤	15세기
까비르	사키	아바디, 사뎃까리어	15세기
똘씨다스	람짜리뜨마나스	아바디	16세기

61) 당시의 발굴된 힌디어 원전의 정보에 기반을 두고 힌디어 문학사들이 기술되었다. 1889년에 그리어슨이 Modern Vernacular Literature of Northern Hindustan을 집필했다. 1913년에 미슈러 반두들이 『미슈러반두 비노드』(Miśrabandhu Vinoda)라는 문학사를 기술했다.

62) 중세문학 전통을 포괄한 힌디어문학사 기술은 람찬드러 슈끌(Rāmacandra Śukla), 나겐드러(Nagendra), 바짠쌍(Baccana Simha)의 연구를 참고한다.

힌디어 문학사에 아바디와 브라즈바샤로 쓰여진 중세 문학 전통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19세기 중엽에 진행되었다. 언어의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중세어를 근대 힌디어의 뿌리로 포함시켰으며, 문학의 외재적·내재적 관점에서 중세문학을 근대힌디문학의 근간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힌디어의 범주가 확대되어 광의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힌디어 문학 전통이 힌두문화담론을 넘어서 이슬람 문화에 기반을 둔 문학 전통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3) 문화적 동의: 근대성과 정통성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사전과 문법서와 문학작품을 편찬함으로써 고대 아르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중세의 문학과 문화 전통을 흡수하며 근대의 부흥과 민족자각이라는 시대의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힌디어와 힌디문학이 근대성과 통합성을 지닌 언어와 문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근대에 새롭게 부상한 중간계층인 신지식인의 언어를 일상생활을 위한 언술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 통치, 행정, 교육의 분야의 수단으로 삼는 노력이 이뤄졌다. 힌디어의 체계화 과정과 다른 문학어의 문학적 전통을 흡수함으로써 힌디문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에는 사실상 근대화된 동질적인 시민으로 구성되는 민족적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이미 19세기 중엽 힌디어 문인들이 주장했던 종교사회개혁과 문예부흥과 민족자각의 논리이면에 힌두민족주의담론이 함유되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수의 방언들과 언어들의 결합체를 통틀어 이제 힌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바잔 썬(Baccana Sinha)의 말을 빌리면 힌디어 방언들과 언어의 문법적인 체계는 모두 다르며, 이 언어들의

어휘, 문법적인 체계와 형태소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통합성 또는 공동체적인 단일성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⁶³⁾ 힌디어는 이제 뿌라끄리뜨어와 더 나아가 산스크리트의 계보를 잇게 된다. 또한 당대의 다양한 방언들과 함께 산스크리트라는 부모의 언어 아래 포함되어 동질성을 가지게 된다.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부모 언어로부터의 파생될 때 나타난 결합 또는 편차들 정도로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중세의 뿌라끄리뜨어는 산스크리트의 형태에서 변이된 것이고, 뿌라끄리뜨어로부터 근대 인도 아르야 계통의 언어들이 분파되어 생성되었다고 인식된다. 이로써 힌디어와 아르야 언어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더 이상 인식되지 않게 된다. 이제 힌디어와 방언은 다른 언어가 아니라 다른 스타일을 지닌 언어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⁶⁴⁾ 이러한 속성은 단일 언어라는 명명 하에 다른 많은 언어들과의 교감을 용이하게 한다.

나그리문자보급회는 언어의 체계화와 문학 전통 수립에 있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계승, 넓은 지역에 걸친 포괄성, 언어와 지역을 넘어서는 확장성, 문화·종교·역사를 공유하는 보편성의 특질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힌디어를 국어로 정립하고자 필요한 문화적 동의 즉 통합이라는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가능성을 부여하기에 이른다.

5. 결론

19세기 중엽에 지역어를 공유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성

63) Śiṃha, Baccana, 『Hindī Sāhitya kā Dūsarā Itihāsa』, Rādhakṛṣṇa Prakaśan, 1997, p. 286.

64) Simpson, Andrew, *Language & National Identi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56.

이 형성되고 있었다. 인도북서부 지역에서 형성된 힌디어 민족(Hindi Jati)은 아르야 사마즈 등의 종교·사회개혁운동 단체들과 바르헨두 하리슈찬드라를 위시한 힌디어 동인들이 이끈 문체개혁운동을 거치면서 힌디어와 힌두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19세기 말에 힌디어 지식인은 영국식민통치하에서 인도북서부 지역에서 법원과 공무상의 업무에서 우르두어를 누르고 힌디어가 패권을 장악하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같이 공적 언어의 지위를 두고 힌디어가 패권을 장악하는 데에 나그리문자보급회가 1893년에 설립됨으로써 혁혁한 공을 세웠다. 현재 데브나그리 문자로 표기된 힌디어가 표준화와 정제화를 이뤄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언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다언어 사회인 인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용어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누리도록 한 배경에 힌디-나그리 운동이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식민치하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근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역어를 방언에 머물지 않고 언어(Bhāṣā)와 나아가 국어의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고무시키며, 민족문학을 고대의 문학적 유산을 이어 받았으며 인도 대륙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도록 문학적 전통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사전, 번역서, 문학사, 언어사, 힌디어 작품의 사본을 발굴하고 출판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뤄졌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그리문자보급회는 힌디-나그리 운동을 통해서 민족어와 민족문학의 형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편으로는 언어와 문자를 정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힌디문학을 더욱 포용적이고 포괄적으로 열어두어 산스크리트 문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중세의 광활한 지역, 문화, 언어, 문학 전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힌두 문화 담론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문화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선택과 배척과 구별을 통해

정치적으로 패권을 장악해 나감과 동시에 포용과 통합을 통해 문화적 동의를 얻어가는 양면적인 방식을 통해 힌디어 헤게모니는 구축되었다고 평가된다.

힌디어가 어떻게 권위를 지닌 언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초기 모습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서 힌디어가 권위를 얻어가는 데에는 힌두근본주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국가민족주의인 문화적 동의의 과정인 흡수와 통합의 과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의 힌디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근대성이며 둘째로 문화적 패권화(힌두근본주의)와 셋째로 문화적 동의(인도의 여러 문화적 가능성들을 포용하고 흡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힌디어 현재의 권위를 지니게 된 데에는 세 가지의 요소를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Dāsa, Śyāmasundara, 『Hastalikhita Hindī Pustakoṃ kā Sūkṣipta Vivaraṇa』, Kashi: 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1918.
- Dāsa Śyāmasundara, 『Merī Ātma Kahānī』, Prāyaga: Indiyana Presa, 1941.
- Kāśī Nāgarīpracārīṇī Sabhā, 『Kāśī Nāgarīpracārīṇī Sabhā kā Arddhaśatābdī kā Itihāsa』 Kashi: 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1943.
- Lāla, Śrīkr̥ṣṇa, Tripāthī, Karuṇāpati, 『Hiraka Jayantī Grantha』, Kashi: Nāgarī Pracārīṇī Sabhā, 1954.

2. 논문

- 김용정, 「19세기 중엽 힌디어의 정제(整齊)와 담론의 근대성」, 『인문학연구』 116, 2020, pp. 5-44.
- Sunītā, Pāṭhaka, 『Nāgarīpracārīṇī Sabhā Kā Hindī Ko Yogadāna』, Varanasi:

Hariścandra Snātakottara Mahāvidyālaya, 1999.

King, Christopher, “The Nagari Pracharini Sabha of Benares, 1893–1914: A Study of the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of the Hindi Language”,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1974.

3. 단행본

김찬완, 최지연 편, 『인도 대전환의 실체와 도전: 힌두 헤게모니 담론』, 다해, 2023.

Agravāla, Mukeśa, 『Vartamāna Sandarbha Meri Hindī』, New Delhi: Taruṇa Prakāśana, 2007.

Bāharī, Haradeva, 『Hindī: Udbhava, Vikāsa aura Rūpa』, New Delhi: Kitāba Mahala, 1984.

Caudharī, Ananta, 『Nāgarī Lipi aura Hindī Vartanī』, Patna: Bihāra Hindī Grantha Akādami, 1973.

Nagendra, 『Hindī Sāhitya kā Itihāsa』, Noida: Mayūra Peparabaiksa, 2012.

Nagendra, 『Nagendra Grathāvalī』, Delhi: Neśanala Pabliśiṅga Hāusa, 1997.

Rastogī, Girīśa, 『Bhāratendu Sañcayana』, New Delhi: Sāhitya Akādemī, 2010.

Sāñkṛityāyana, Rahula, 『Purātattva Nibandhāvalī』, Allahabad: The Indian Press, 1937.

Śarmā, Rānavilāsa, 『Bhāratīya Sāhitya Kī Bhūmikā』, Delhi: Akṣara Prakāśana, 1996.

Śarmā, Rānavilāsa, 『Nirālā kī Sāhitya Sāadhanā』, Delhi: Rājakamala Prakāśana, 1972.

Śarmā, Rānavilāsa, 『Rāṣṭrabhāṣā』, Delhi: Akṣara Prakāśana, 1965.

Siṁha, Baccana, 『Hindī Sāhitya kā Dūsarā Itihāsa』, Delhi: Rādhākṛiṣṇa Prakāśan, 1996.

Śukla, Rāmacandra, 『Hindī Sāhitya kā Itihāsa』, Delhi: Prakāśana Sansthāna, 2002.

Śukla, Rāmacandra, 『Hindī Sāhitya kā Itihāsa』, Delhi: Kānti Publications, 2007.

Talavāra, Vīrabhārata, 『Rassākaśī: Unnīsvīm Sadī Kā Navajāgarāṇa Aura Paścimottara Prānta』, Delhi: Sārāmśa Prakāśana, 2006.

- Taṇḍana, Pūranacanda, 『Hindī Bhāṣā Sāhitya Aura Saṃskṛti』, New Delhi: Satīśa Buka Ḍipo, 2008.
- Vājapeyī, Kīśorīdāsa, 『Rāṣṭrabhāṣā Kā Itihāsa』, Calcutta: Janavāṇī Prakāśana, 1950.
- Vājapeyī, Nandadulāre, 『Devanāgarī Lipi Svarūpa, Vikāsa aura Samasyāeṃ』, Calcutta: Janavāṇī Prakāśana, 1962.
- Bayly, C.A., *The C.A. Bayly Omnibu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Cohn, Bernard S, “The Command of Language and the Language of Command”, Guha, Ranjit, *Subaltern Studies IV*,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6–329.
- Dalmia, Vasudha, *The Nationalization of Hindu Traditions: Bhāratendu Hariśchandra and Nineteenth-century Banara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Freitag, Sandra B., *Culture and Power in Banaras: Community, Performance, and Environment, 1800–198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Grierson, George Abraham, *Linguistic Survey of India, IX-1*, Calcutta: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1916.
- Gould, William, *Hindu Nationalism and the Language of Politics in Late Colonial India*, New Delh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Ives, Peter, *Language and Hegemony in Gramsci*, London: Fernwood Publishing, 2004.
- King, Christopher, *One Language, Two Scripts The Hindi Movement in Nineteenth Century North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Orsini, Francesca, *Before the Divide: Hindī and Urdu Literary Culture*, New Delhi: Orient Blackswan, 2010.
- Orsini, Francesca, *The Hindi Public Sphere 1920–1940: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Age of Nationalism*,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Rai, Alok, *Hindi Nationalism*, Hyderabad: Orient Longman, 2000.
- Simpson, Andrew, *Language & National Identity in Asia*, Oxford University

182 인문연구 104호

Press, 2007.

Williams, Raymond, *Marxism and Literature*, London, Verso, 1977.

(투고일: 2023. 8. 21 심사완료일: 2023. 9. 22 게재확정일: 2023. 9. 25)

김용정
소속: 한국대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우편: kimyongjeong@hufs.ac.kr

[Abstract]

The Early Formation of Hindi Hegemony

– Cultural Hegemony and Cultural Consent as Explored through the
Role of the Nagri Pracāriṇī Sabhā –

Kim, Yong-Jeong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various dialects that existed in the vast northwestern region of India were unified under the umbrella of Hindi to form the Hindi belt. As one of the many dialects under the Hindi umbrella, Hindi was little more than an everyday language and the language of traders, but it gained hegemony within the Hindi belt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bringing other dialects under its umbrella.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came to symbolize Hindu cultural and national discourse, gradually acquiring the status of national language and official language, and it can be said to be hegemonic as the representative language of the Indian language in the current multilingual India. It is examined how Hindi, which was outside the hegemony, gained cultural hegemony and consensus, and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is as explored through the role of the Nagri Pracāriṇī Sabhā.

Key words: Hindi, Hegemony, Nagri Pracāriṇī Sabhā. Cultural Hegemony, Cultural Consent